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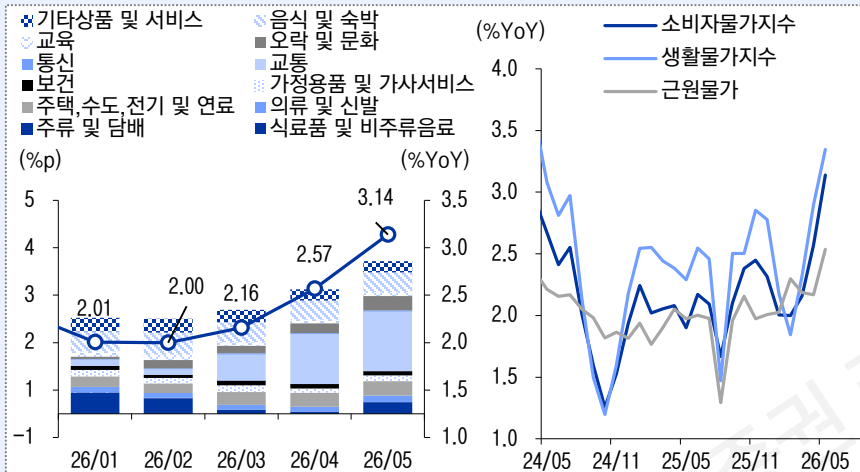
Today Chart **Bond**

2026. 6. 2

채권 우혜영

whydele@ls-sec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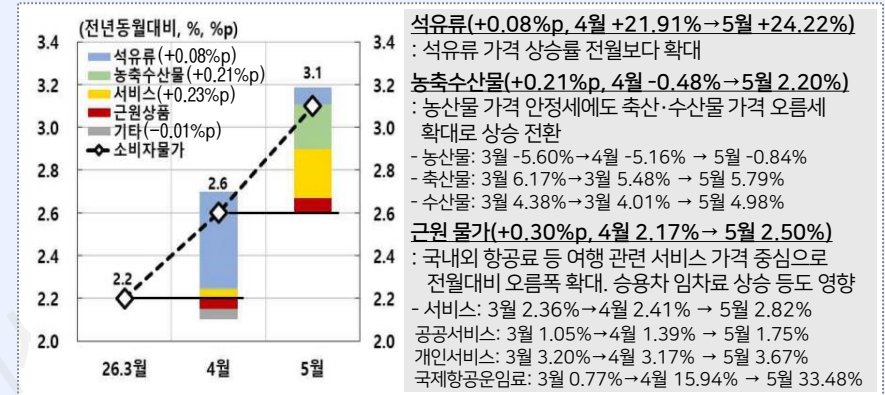
한국 2026년 5월 CPI: 석유류 가격과 계절 요인(5월 연휴 효과)



항목	상승률(%MoM)	기여도(%p)	상승률(%YoY)	기여도(%p)
총지수	+0.46%	+0.46%p	+3.14%	+3.14%p
식료품 및 비주류음료	-0.04%	-0.01%p	+1.61%	+0.24%p
주류 및 담배	+0.13%	+0.00%p	+0.30%	+0.00%p
의류 및 신발	+0.89%	+0.05%p	+2.77%	+0.14%p
주택, 수도, 전기 및 연료	+0.25%	+0.04%p	+1.77%	+0.31%p
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	+0.81%	+0.04%p	+2.59%	+0.12%p
보건	-0.05%	-0.00%p	+1.10%	+0.09%p
교통	+1.53%	+0.16%p	+11.6%	+1.17%p
통신	-0.02%	-0.00%p	+0.61%	+0.03%p
오락 및 문화	+1.80%	+0.11%p	+5.05%	+0.31%p
교육	+0.25%	+0.02%p	+1.31%	+0.10%p
음식 및 숙박	+0.31%	+0.05%p	+2.65%	+0.40%p
기타상품 및 서비스	+0.04%	+0.00%p	+4.14%	+0.23%p

자료: CEIC, 한국은행, LS증권 리서치센터

물가 변동 요인



Key Point

- **소비자물가는 헤드라인 3.14%(전월 2.57%),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2.53%(전월 2.19%),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2.54%(전월 2.17%)**
 - 통계청은 세일 영향, 출고가 인하 등으로 가공식품 상승 폭은 축소되었지만, 농산물 하락 폭 축소, 연휴에 따른 여행·숙박 관련 품목이 상승한 개인서비스, 국가유가 영향의 석유류 상승 폭 확대 등에 3.14%로 상승했다고 평가
 - 근원 물가상승률은 2.5%대로 상승(7월 인상 전제 조건)으로 제시한 바 있음
- **한국은행 이지호 조사국장, 생활물가 상승률이 3% 초중반까지 올라 소비자 지출에서 필수재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졌다**고 평가
 - 6월에도 높은 수준의 석유류 가격 이어가면서 5월과 비슷할 것이라 예상
 - 유가 충격이 점차 여타 부문으로 파급됨에 따라 당분간 3%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계심 갖고 물가 상황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 언급
- **이번 물가 지표로 7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추가 확대되었다** 판단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우혜영)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본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